"방치하면 분종"…초강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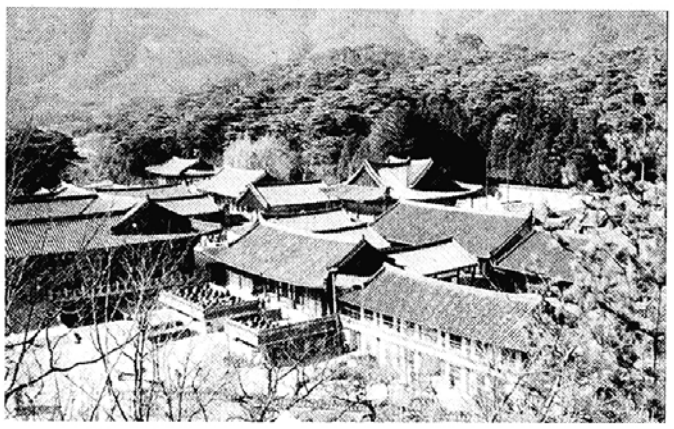
영축총림 해제 배경과 전망

문수사등에 정화회의 인사 발령 '계기'

통도사 "우리식으로"…갈등 새불씨 될듯

조계종 5대 총림의 하나인 통도사 영축총림(叢林) 해제와 문수사 관룡사 해남사 등 통도사 3개 말사의 직영사찰 지정에는 총무원의 태도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고산총무원장은 지난 3월 열렸던 139회 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총림 해제를 보류해달라고 종회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번 종회에서는 "종회의 결의에 따라 통도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통도사가 7월초 문수사 등 3개 사찰의 주지를 정화회의 관련 인사로 발령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것이며, 더 이상 통도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으며, 정화회의의 근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총무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에다 대다수 종회의원들의 "현재대로 방치하면 분종으로 간다"는 인식이 총무원의 태도 변화와 겹쳐지며, 통도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림 해제·직영사찰 지정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26일 통도사 영축총림의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사진은 통도사 전경.

총림을 해제하고 문수사 등의 직영사찰 지정 이후 총무원의 이에 따른 조치가 주목된다.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의 태도 변화, 즉 총림 해제에 따른 월하스님의 영향력 감소, 월하스님에 대한 반대그룹 형성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도사 일부에서는 주지 월파스님의 해임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재가불자 단체인 부산불교실천운동본부(본부장 안정운)가 29일 성명을 통해 "통도사가 수행의 장으로 돌아가 불보종찰의 본래 위상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이번에 직영사찰로 지정된 3개 사찰은 영축총림 부방장이었던 청하스님 문도가 관리하던 사찰로, 지난 해 조계종 사태 와중에 월하스님이 청하스님을 부방장에서 해임하고, 3개 사찰의 주지도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직영사찰로 지정되면 총무원이 주지 직무를 대리하는 관리인을 파견해 해당 사찰을 직접 운영한다.

총무원과 종회의 조치에 대해 통도사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월하스님은 "해제한다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맘대로 하면 되는가"라며 "나름대로 방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된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또 27일 회의를 열고 월파스님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부주지 진철스님이 통도사의 모든 실권을 갖고 종무를 관장토록 했다.

정화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향후 통도사를 종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화불사의 총본산으로 삼겠다"며 총무원의 조치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도사와 정화회의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총무원의 총림 해제·직영사찰 지정 조치가 자칫 조계종 사태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해제결의 종회표정

"해제결의 마음 무겁다"

대부분의 조계종 종회의원들은 "현재대로 방치하면 분종으로 간다"며 총림 해제에 찬성을 표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통도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통도사 교구 종회의원인 영배스님은 "종단사태의 여파로 총림을 해제한다면 종단의 부끄러움이다. 한 번 더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혜창스님은 "총림을 해제하더라도 해제 의도를 성취할 수 있겠느냐?"며 표결에 기권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내가 총림 해제를 결의하는 목탁을 치는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총림이란 총림은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춘 종합 수행도량으로,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에서 지정한다.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스님이 주지를 임명하는 등 총림의 지도 감독권을 갖는다.

통도사 영축총림은 해인사 해인총림(1967년, 초대방장 성철), 송광사 조계총림(1969년, 초대방장 구산)에 이어 72년 총림으로 지정됐으며, 그 뒤 수덕사와 백양사가 각각 덕숭총림(1984년 초대방장 혜암)과 고불총림으로 지정됐다. 고불총림은 1947년 만암스님에 의해 개설됐으나, 한국전쟁으로 사찰이 소실되며 맥이 끊어졌다. 96년 서옹스님에 의해 총림으로 지정됐다. 영축총림 해제에 따라 조계종의 총림은 4개로 줄어들었다.

■사찰재정 투명화 향방

원론엔 찬성 실천 불투명

최근 조계사의 불사금 31억원을 포함한 2백억원이상 횡령혐의 고소사건, 불국사 재무스님 13억 횡령 잠적사건이 발생하면서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기위한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가연대의 서명운동을 통한 사찰재정 투명화운동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반불자들도 교단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종단분규가 반복되는 것은 사찰재정 운영이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않게 나오고 있다. 7월 26일 열린 조계종 임시종회 회의장에서 40여명의 종회의원이 서명했으나 장윤 향적 스님 등 일부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재무부장 일철스님이 서명한 용지를 빼앗아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재가연대는 긴급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서명용지 반환을 공식요청해 놓고 있다. 이처럼 사찰재정공개를 두고 보이는 시각차이는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사찰운영위법 강제규정 삽입 필요

사찰재정 투명화와 공개운용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재가연대는 94년 제정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도층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대부분은 공감대가 희박하고 일반사찰의 불자들도 사찰운영에 대해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보니 실제 사찰공개운영이 되고 있는 사찰은 불과 열 곳 남짓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종법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예산회계법에 재정관리지침을 강화하고 본말사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 사찰운영위원회법에도 보고의무를 이행치 않는 사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 힘없는 신도회가 사찰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정과 개혁의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재정을 공개운영해야 한다는 해법은 이미 제시되었다. 공개운영의 모범사례가 특별나지 않고 한국불교의 일반적인 일로 자리매김 할 때 21세기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의 의의는 크다는 여론이다.

재가연대 정용정사무처장은 "사찰재정 투명화와 공개운영은 그동안 '잿밥에만 눈이 멀어있다'는 세간의 지적과 비판을 불식시키고 삼보정재를 투명하게 사부대중이 운영하여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은 방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권에 연연하는 종단내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목어 — 죄대로 법대로

신창원씨는 외적인가. 길거리의 젊은이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한다. 외국언론이 그를 로빈 훗에 비유한 것도 그런 경향을 부추긴 듯하다. 그렇지만 의적으로서의 그의 구체적 행적은 거의 없다. 그는 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절도를 했고, 그 중 1%도 안되는 돈을 사회자선단체에 기부했을 뿐이다.

그는 일개 범죄자고 탈옥수이다. 그런데도 그를 영웅시하는 세태에서 위태롭고 불길한 징조를 감지한다. 그 배면에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단면이 있다. 날마다 불거지는 고위층의 부정과 비리는 이제 뉴스보기가 겁날 정도가 되었다. 서민들은 이 풍속도에 절망하여 세상이 뒤집히기를 은밀히 꿈꾼다. 기존의 제도와 체제가 완강하고 개혁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때 그 열망은 더욱 커진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마이크를 갖다대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부자들을 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에 멍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민주자본주의의 원리와 토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축적 과정은 물론이고 운용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뿌리깊다. 고급옷사건과 군면제, 경기은행로비에서 보듯 돈만 있으면 안될 일이 없다. 거꾸로 돈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신창원씨는 자신의 범죄와 탈주가 개인적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성을 고발하면서 사회의 동의와 공감을 얻었다.

만일 구조적 문제라면 누구나 신창원씨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연기법의 진실이다. 무책임한 미화나 비난을 그만두고, 사회적 관행과 제도라는 인연의 그물을 손보아야 한다. 최소한 재판과 행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인권이 존중되도록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혹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얼마 후에 또 다른 신창원씨가 되어 사회를 원망하며 범죄와 탈주를 거듭할 것이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 논설위원)

김포학사 완공은 했는데…

시공업체 공사대금 완납요구 시위

조계종 "계약외 비용 부담 불가"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를 완료한 (주)풍림산업 전홍규 부사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이 7월 26~28일 3일간 조계종 제141회 임시중앙종회가 열린 서울 조계사 해탈문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는등 김포학사 문제가 가시화 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풍림산업측은 승가대 김포학사 공사금이 최초 계약 당시 274억원 보다 85억원이 늘어나 3백59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조계종이 명확한 대안과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불방법을 밝히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 종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현재 김포학사에 대한 현장 실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사결과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최종 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조계종측은 97년 8월 당시 계약상 금액인 274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풍림산업측은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해 359억원이 총공사비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184억여원이나 소요될 총무원 청사 신축 등 조계종의 예산이 쥐어짜도 모자랄 판에 종단이 김포학사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다.

이와관련 중앙종회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대책특위(위원장 종하)가 지난 7월15일 김포학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종단 전체가 나서 토지 매각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번 종회가 유회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해 김포학사 공사금 지급 문제는 당분간 오리무중에 빠질 전망이다.

◇부지 5만여평에 들어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전경.

조계종과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풍림산업측에 '계약대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와 동문회에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약속했지만 공사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자금난에 처한 풍림산업이 소송 등 강경수를 둘 경우 문제는 더욱 꼬일 공산이 크다.

극단적으로 총무원 신축공사 비용과 함께 종단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한 인수불능 사태마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김포학사 이전 후의 학교 운영자금 조달방안, 중앙승가대 신입생의 계속되는 미달사태 등 산적한 문제도 안고 있어 이전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개연성도 있다. 김포학사 이전을 약속한 조계종 입장에서는 한동안 논의되어 온 동국대 병설론과 김포학사 일반인 수용론을 다시 대안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포학사 이전불사가 총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저희 주식회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신 많은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대동소방입니다.
그 동안 저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시고,
심적으로 위안을 주신 불자님께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에 힘을 얻은
대동소방 임직원일동은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97년 12월 IMF이후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조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방업계에서는 드물게 신기술개발과 수출에
주력하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대동소방은 불자님들과의 1년전 약속을
지키기위해 투자하신 금액에 년이율 20%를
더하여 상환하고자하오니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요.**
저희 대동소방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님께
다짐드립니다.

1999년 7월
대표이사 이남제외 임직원일동 올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TEL:(02)2215-0723/FAX:(02)2246-8503

입 금 자 명 단

김정복	이종민	이철은	김진순	이효순	이희정	박동원	김성춘	이동희	강연미
최가순	함지순	이재선	조영식	영전시한	배필수	이기항	수능엄사	홍원사	한경규
고명옥	황혜지	김주형카1	장창례	김정순	최계숙	김정봉	천민지	윤정희	부산금성사
이순자	이건일	성기훈	이원웅	성항선	김양수	윤명옥	정경순	양기열	박사영
박현동	이종옥	조선옥	김향란	이종관	황선지	진남곤	김정옥	서영석	우아
배경희	임원숙	이인길	전성미	박영숙	이동순	권재술	신성업	임순규	이재영
원태권	임경분	신규갑	황인형	서운석	지정시	이분아	김병호	이복희	김진섭
박승운	김윤분	이경자	최용원	보륜사	허정옥	서윤석	이재홍	이분자	선객
배영숙	손순호	황창영	홍성민	김정호	김위수	전이준	오필구	이만승	창대기연
김경자	허선자	성정	허렴	영명사	김강웅	서승희	박경희	이영미	반야선원
김인규	이경숙	장문자	청풍사정	정인섭	김수경	김성관	장재열	정종문	박정숙
김영환	최영희	이효숙	최성숙	정일여	김강웅	이석정	정진행	최재석	정석기자
이승원	이순자	허종범	해인사약수	정수희	강동원	최경락	성종	김성애	임영숙
전상섭	선학빙	이동훈	김태윤	권희선	울산정롯	영광도서	김주훈	지환터	박병곤
신희섭	박임순	천경남	이현숙	이군자	역곡포교우	임옥희	김명순	조은경	이재영
백영보	정태호	김상순	김금홍	이완규	진주천진	김병곤	문옥남	신봉희	이인한
정덕근	김미숙	장경심	박분두	이재숙	김봉희	오광수	신두현	김용남	화엄사
김귀순	김인락	신현종	안종순	허덕남	곽종국	정은희	지현자	송종화	김영순
박현동	김보리화	홍연희	최임자	지현스님	김동식	김주덕	이종태	신성옥	임우태
용화선원	이진우	홍연희	박영원	허주	진관스님	강순덕	이명숙	우주상	심유희
고순진	이종욱	이종현	문대식	조인걸	이경자	이봉운	이재순	김성욱	정해수
약사사	김삼범	강용혁	정원축스님	박연조	신정옥	김미명	구영자	박찬연	장종구
봉덕사	이순임	오혜주	윤명님	조명숙	이청도	방미혜	지원희	서경자	장범윤
정동기	강용길	함경호	도재권	노희오	김창수	윤정연	박주림	동명스님	김종구
이수아	윤정자	맥암음회사	김신	이희이	김항진	오혜숙	보천사	김윤성	황정복
채정필	성보유리	윤인숙	이성윤	정계명	김광훈	박순자	지일스님	이승철	김명환
민인숙	조규동	서은희	구영미	김유희	임화순	이정심	방님순	이경근	정길주
봉현주	임희섭	김덕화	권정조행	박건석	이두진	장영찬	김은주	주간불교	김주석
김수연	전승철	진태영	덕인스님	채봉수	임명덕	장정해	맹길재	이순지	맨&위크
조은경	김숙자	정현애	남규용	강용운	김종연	나숙희	이현호	관음사혜선	주형민
박미혜	인임스님	정희수	박상필	이영숙	이진구	이재옥	이경애	국청사	윤수연
염명호	성륜스님	김수자	최인영	조차원보사	노건성	천성봉	유명숙	손혜순	김성현
최순자	혜국스님	김정숙	이태우	한영지	정인순	구자임	장순희	김경란	윤희문
김공임	서태은	연명순	청파은	박득채	인윤기	구본일	신동준	황운성	성해스님
민경임	우선지	정혜진	심복사	이임힐	문유미	구영미	지은혜	유병숙	현호스님
김순희	김옥희	명법사	김김자	이정순	김은희	이재옥	조호용	도법문주	최수석
강인자	김명주	김분님	박희철전	김영주	하병식	안락행	조명숙	김순복	이경순
오세진	권기선	권영하	여영주	양재석	김민옥	이정숙	김미경	지신스님	정순화
김두경	박점수	연영순	정기영	이정희	함마음선원	황봉환	손경자	석동현	김춘연
배종옥	정정태	박김운	박순자	김효성	이기남	허상수	관음사	노재성혜남	김절자
김길순	영월스님	조연숙	이기자	엄정자	내원사스님	윤명희	김지숙	양승옥	김의택
정동숙	조정현	이해경	관선스님	최성연	김정예	황윤길	최정숙	김수연	윤성모
김한숙	오양자	이태권	이정우	태인사	이덕기	민후임	윤혜애	신홍사	임북선
김성희	수종	조은정	김정숙	지안스님	임옥빈	권영동	홍륜사	박정만	
도종희	장영만	김옥순	역곡포교우	청호스님	백상현	성엽스님	임순규	배종수	

초강력 미니소화기불자비

- 화학반응식 순간강력 소화기로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분말 소화기처럼 흔들어 주거나 교체 할 필요가 없음.
- 에어졸 타입이므로 소화액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사용 가능.
- 석유, 가스, 휘발유, 고무 등의 위험한 불에 강하고 전기가 흐르는 중에도 사용 가능함.
- 디자인이 산뜻하여 차량이나 가정에 설치해도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구입 문의
080-215-0723

주식회사 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LTD.
본 사/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TEL (02)2215-0723 FAX (02)2246-8503
경주지사/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TEL (0561)772-0729 FAX (0561)772-3923
파주공장/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5리 406-1
TEL (0348)952-9652 FAX (0348)953-9653